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1. 1.(수) 11:00 < 1.2.(목) 조간 > 배포 2025. 1. 1.(수)

CES 2년 연속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구축… 수출동력 유지위해 범정부 수출마케팅 총력 지원

- 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 36개 기관, 445개사 참여 통합한국관 운영
- 글로벌 피칭챌린지 개최… 한국형 AI, 로봇, 모빌리티, 디지털헬스 등 전방위 세일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강경성)는 현지시간 1.7(화)~1.10(금) 동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5'(Consumer Electrics Show)에서 범정부 협업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통합한국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CES는 IT·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대표 전시회로서, 올해 'Dive In'을 주제로 주요 글로벌 기업의 AI 기술적용 신제품과 서비스들이 중점 전시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규모인 900여 개사가 참가한다.

올해 CES의 주요 특징은 ①AI 기술의 실용화, ②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③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성으로 분석된다. 첫째, 작년 CES에서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금년에는 실제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분야 등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여러 제품들이 전시될 계획이다. 둘째, 1차 발표된 352개 CES 혁신상 수상작 중 AI 분야(108개, 30.7%)에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77개(22%)로, 원격 예측·진단기술과 의료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혁신제품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셋째, 혁신기술들이 개인의 편의를 넘어 안전·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과 자원순환·에너지효율 등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기술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행안부·서울시 등 중앙부처·지자체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쳐 36개 기관, 445개 기업의 부스 위치·디자인·브랜드(로고) 등을 통합한 한국관을 구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범정부 통합 홍보와 규모있는 국가관 운용을 통해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마케팅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통합한국관 규모 : ('23) 14개 기관, 140개사 → ('24) 32개 기관, 443개사 → ('25) 36개 기관, 445개사

또한,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전시회 개막에 앞서 1.6(월)에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여 CES 주최사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와 미국 주요 금융회사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등을 초청해 미국 소비재 가전 시장 전망, 투자유치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개막일인 1.7(화)에는 'KOTRA-IBK기업은행 업무협약식(MOU)' 체결로 국내 혁신기업 발굴과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등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며, 다음날인 1.8(수)에는 'K-Innovation 피칭챌린지' 개최를 통해 글로벌기업(Walmart, IBM 등) 대상 국내기업의 피칭 챌린지와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참가기업 수출 성과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전시회 종료 후인 1.23(목)에는 금번 CES 혁신상 수상기업과 수출 지원 기관들이 참여하여 성공사례 및 지원방안 발표, 제품 시연 및 온라인 수출상담을 통해 혁신을 수출로 이어갈 수 있도록 'CES 혁신상 수상기업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 CES 혁신상 수상기업 전체 292개사 중 우리나라 기업은 129개사로 작년에 이어 최다 수상을 달성하였다(1차 발표('24.11.18), 2차 발표('25.1.7 예정)).

* (1위) 한국 129개사 (2위) 미국 60개사 (3위) 중국 16개사 (4위) 일본 15개사 순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국내 정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CES와 같은 세계적인 전시회에서 2년 연속 역대 최대규모 통합한국관을 구성한 것은 위기 시에 더욱 강해지는 수출 원팀 코리아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며, "향후 대외 신인도와 수출동력을 유지해 나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미국 신정부 출범 및 국내 정치여건 불확실성 등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전시회,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지원 사업 등을 정상 추진하는 등 수출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OTRA 강경성 사장은 "세계 최대 소비재 가전전시회인 CES 2025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 트랜드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라며 "KOTRA는 우리 참가기업이 이번 전시회에서 모인 글로벌 기업에게 한국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	책임자	과 장	정승혜 (044-203-4030)
		담당자	사무관	유강열 (044-203-4034)
			주무관	박수민 (044-203-40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CES 2025 개요

□ **(개최기간, 장소)** 1.7.(화)~1.10.(금), 미국 라스베가스 LVCC & Venetian

□ **(규모)** 232,000㎡/161개국 4,312개사, 참관객 13.8만명('24년 기준)

* MWC 12만㎡, 하노버 산업 11만㎡, 광저우 무역 155만㎡ / 킨텍스 10만, 코엑스 3.6만

* 최근 참가기업 규모 :('21-온라인)1,900개사→('22)1,490개사→('23)3,500개사 ('24) 4,312개사

□ **(특징)** 1967년 가전 전시회로 시작하였으나, '제품'보다는 '기술'에 집중하여 산업간 경계를 허무는 세계 최대규모 전시회로 성장

□ **(주제)** Connect. Solve. Discover. Dive in

□ **(주요 트렌드)** '24년부터 AI 기술이 핵심 테마로 부상, '25년은 주요 글로벌기업의 AI 기술 적용 신제품과 서비스들이 중점 전시될 예정

핵심 트렌드	주요 전시 품목
AI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고객 경험 향상하는 신제품
디지털 헬스	바이오테크, 건강 모니터링 제품, GLP-1 계열 약물(비만&당뇨 치료제)
모빌리티	전기차, 최신 자율주행 기술, 항공/우주(Space-tech) 제품 등
로보틱스	음성 인식 탑재 지능형 로봇, 산업용 로봇 등
지속가능성	재활용 기술, 고에너지 효율 제품 등
스마트홈/가전	초연결 스마트 디바이스, 차세대 OLED/Micro LED 등

□ **(기조연설)** 엔비디아 창립자 젠슨 황이 "AI 시대의 리더십과 혁신" 주제로 연설 예정, 이외 파나소닉, 델타, 볼보 등 발표 예정

< 주요 기조연설 스케줄 및 주제 >

일자	시간	연사		주제
1.6 (월)	18:30	젠슨 황 (Jensen Huang)	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	CES 2025 기조 연설: AI 시대의 리더십과 혁신
1.7 (화)	08:30	유키 쿠스미 (Yuki Kusumi)	파나소닉 홀딩스 그룹 CEO	WELL into the Future: 파나소닉의 혁신과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비전
	17:00	에드 배스티안 (Ed Bastian)	델타항공 CEO	델타가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는 비전
1.8 (수)	09:00	마틴 룬드스테드 (Martin Lundstedt)	볼보 그룹 CEO	지속 가능한 교통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Volvo의 비전
	14:00	줄리 스위트 (Julie Sweet)	액센츄어 회장 겸 CEO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변혁과 리더십의 중요성

참고 2 통합한국관 개요

□ 통합한국관 개요

○ (**개념**) 해외전시회에 국내 복수기관 참가 시, 부스 임차위치, 부스 장치·디자인 및 BI 통일, 통합홍보 등으로 통일감과 규모있는 한국관을 구성

○ (**기대효과**) 참가기업의 △대한민국 브랜드 마케팅(코리아 프리미엄) 활용과 △규모 있는 국가관 운용 → 투입 예산 대비 수출마케팅 증대 효과 발생

□ CES 2025 통합한국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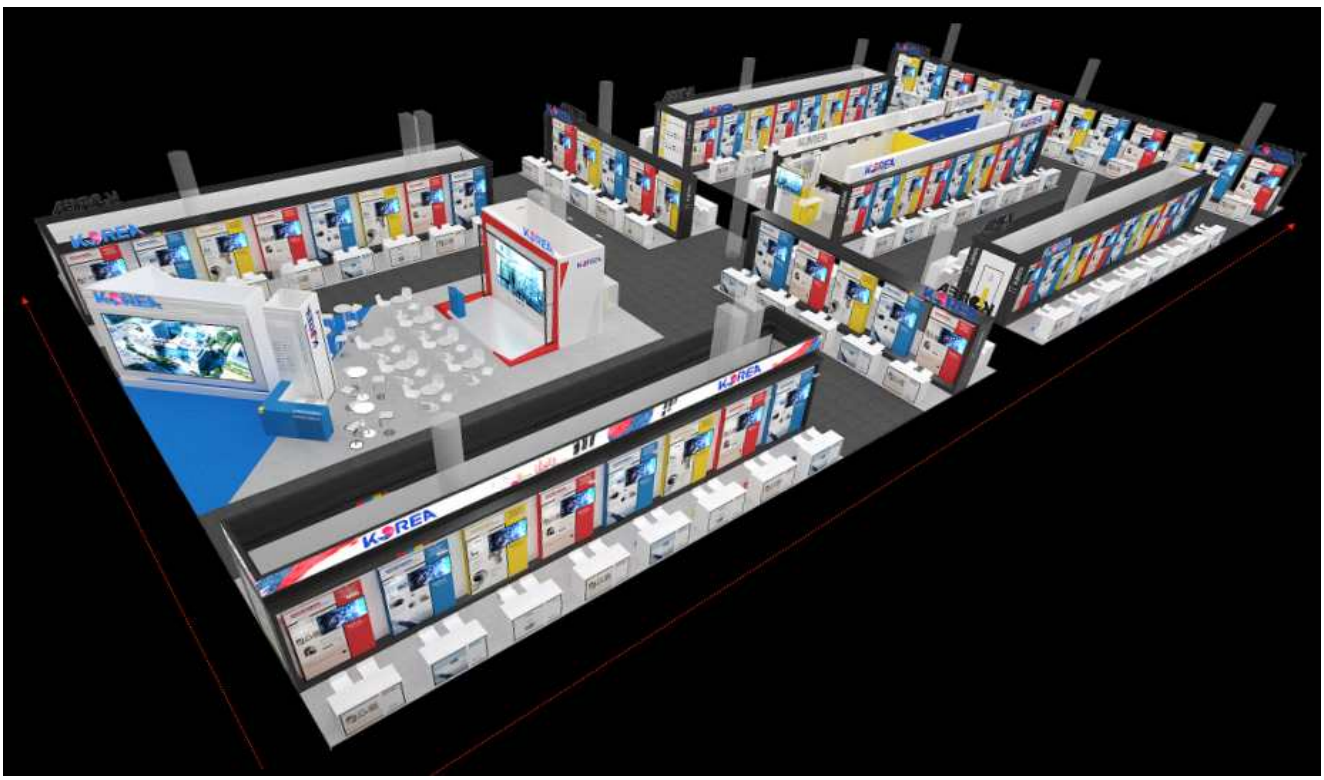
○ CES 복수 참가 주요기관(행안부·서울시 등) 사전협의를 통해 2년연속 대규모 통합한국관 구축 ('24년 32개 기관, 443개사 → '25년 36개 기관, 445개사)

< CES 통합한국관 운영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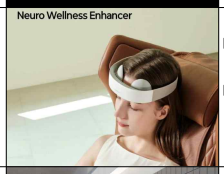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한국기업 수		390	340	442	565	800	**900 이상**
통합관	참가기관 수	8	5	9	14	32	**36**
	참가기업 수	95	89	77	140	443	**445**

* '24.12.27일 기준 한국 참가기업 예상치, 현재 CTA 홈페이지에 참가기업 업데이트 중

< CES 2025 통합한국관 디자인 >



참고 3 CES 2025 혁신상 수상 주요 기업

구분	기업명	제품사진	제품설명	수상카테고리
최고 혁신상	니어스랩		▸ 완전 무인화 드론 스테이션 ▸ 스테이션을 통해 배터리 기술의 한계로 드론 운용시간이 제한되는 문제 개선	Drones (드론)
혁신상	모빌린트		▸ 온디바이스 AI용 고효율 AI 칩 ▸ 2W 이하의 초저전력으로 칩 운용가능하여 비용 절감효과 기대	AI (인공지능)
	큐리오시스		▸ 자동화 세포 농축 및 분리 시스템 ▸ 실시간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혈액 내 다양한 성분을 분리	Digital Health (디지털헬스)
	메디코스 바이오텍		▸ 기능성 창상피복재 ▸ 세포, 조직,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상처의 치료가 가능한 기능성 창상피복재	Digital Health (디지털헬스)
	세라젬		▸ 우울 증상 개선 의료기기 ▸ 세계 최초로 의료 승인을 받은 가정용 우울 증상 개선 기기	Human Security for All (인간안보)
	스탠다드 에너지		▸ 바나듐 이온 배터리 셀을 내장한 타일형 에너지저장장치 ▸ 가로 세로 각 15cm 크기의 타일 형태로 제작된 에너지저장장치	Smart Cities (스마트시티)
	위플로		▸ 휴대용 스마트 드론 점검 솔루션 ▸ 비접촉 방식으로 약 10초만에 드론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AI분석을 통해 고장 예측	Drones (드론)
	스튜디오랩		▸ 촬영 자동화 로봇 솔루션 ▸ 사진작가 대신 사진촬영을 자동으로하는 지능형 로보틱스 기술	Robotics (로봇)
	씨아이티		▸ beyond 5G 통신환경의 mmWave 대역용 안테나 ▸ 10nm두께의 동박을 활용하여 투명하면서도 보다 균질한 전파송수신이 가능	Vehicle Tech & Advanced Mobility (차량기술첨단모빌리티)
	앤씰		▸ 뇌파 안정 위한 스마트 매트리스 ▸ 사용자 생체 징후의 실시간 변화를 분석해 안정적인 수면 상태를 보장 매트리스	Smart Home (스마트홈)